

2023 경기예술지원 기초예술창작지원 【 문학-출간지원 】 심의평

2023 경기예술지원의 문학 부문 출간지원을 위한 심의가 이루어졌다. 231건이 논의 대상이었고 지원자의 역량과 작품의 수월성, 기대가치 등을 고려하여 20건을 선정하였다.

지원작품들의 영역은 시, 소설, 동화, 동시, 청소년시, 청소년소설, 수필, 평론 등 다방면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심의위원들은 일단 지원자의 역량과 기대가치 등을 고려하여 필자들의 전문적 영역을 지원한 경우에 가산점을 주었다. 가령, 시인이 쓴 평론이나 동화작가가 쓴 동시와 같은 경우, 그 작품이 문단과 독자들의 전문적인 평가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작가의 전문적인 역량과 기대치에 대한 점수가 그것이다. 활동 영역을 바꿔 지원한 경우에도 종종 눈에 띄는 작품이 있지만, 이 한 건으로 모든 역량을 평가할 수는 없다. 다음, 작품의 수월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거들 말이 있다. 세상의 모든 독자들은 ‘새로운 미적 기준이나 기대치’를 요구한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심의위원들은 올해의 지원작들을 보면서 지원자들이 그 점을 더 적극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음에 동의하였다. 기존 시단의 서정적 아름다움, 시련과 극복의 권선징악적 계몽성, 청소년다운 고민이라는 명분의 얇은 언어의식 등은 이제 독자들에 의해서도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이 모든 요구를 일거에 넘어설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그 작가만이 한국문단에서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는 뚜렷한 주제의식이다.

올해 선정된 작품들은 모두 심의위원들에게 우수작품으로 평가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일이 마땅하다. 최종적인 선정과정은 꽤 힘들었는데, 많은 작품들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원작품도 많을뿐더러 최종 선정도 어려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기도의 문학예술 역량이 우수하다는 사실을 뜻한다. 이점이야말로 심의위원들을 기쁘고 즐겁게 한다.

2023.2.23.

심의위원	김남일 (소설가)
	박수연 (문학평론가, 충남대학교 교수)
	안현미 (시인)
	유해연 (아동문학가)